

이름 :

학교명 :

감독 확인

응시번호 : □ □ □ □ - □ - □ □ □ □

※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OMR 카드에 표시(●)하세요.

[1~10] <신의주 백선 백화점>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

1.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로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환: 세련된 신문물과 세속적 부를 즐기는 사람으로 일본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일본인의 존경을 받고 있다.
- ② 훈: 환과는 이란성 쌍둥이이며 백선 백화점의 지배인으로 최신 유행하는 의상과 장신구를 찾아 자주 출장을 다닌다.
- ③ 미옥: 열세 살 소녀로 히메코라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, 수요일마다 훈 오빠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좋아한다.
- ④ 엄마: 계절에 어울리는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고 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며 고아원의 고아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돌본다.
- ⑤ 아빠: 교회 목사로서 5개 국어에 능하고 웬만해서는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젊은 시절에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.

2. 미옥을 중심으로 책 내용을 바르게 정리하지 못한 것은?

- ① 미옥은 염색 공장에서 일하게 된 첫날 옆자리에서 일하는 송호에게 레몬 사탕과 자기 몫의 주먹밥을 준다.
- ② 병에 걸린 미옥은 학교를 그만두고 석하산 산골 집에서 요양을 하던 중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.
- ③ 신의주로 돌아온 미옥은 백선 백화점이 잿더미가 된 것을 보게 되고 오빠들과 함께 38선을 넘어 서울로 가기로 한다.
- ④ 홀로 강을 건너 남한에 도착한 미옥은 월남한 아빠, 오빠와 재회하고 서울 한가운데 있는 교회 지하실에서 생활하게 된다.
- ⑤ 미옥은 신의주에 남아 있는 엄마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내지만, 어느 날 연락이 끊기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.

3. 아래와 같은 종류의 감각적 표현이 쓰인 문장은?

내가 더러운 바늘에 찔리고 또 찔려 손가락이 붓고 굵아 아파할 때 엄마는 어디에 있었지?

- ① 경비대원 중 하나가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총신을 내 관자놀이에 대고 짓눌렀다.
- ②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와 총소리가 이어지더니 다시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.
- ③ 감나무에 매달린 향긋한 감 냄새를 맡으며 정원 사이로 난 오솔길을 달렸다.
- ④ 마침내 긴긴 장마가 끝나고 구름이 걷히면서 장엄한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.
- ⑤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달콤한 약과를 내밀며 엄마를 맞이했다.

4. 아래에서 짐작할 수 있는 ‘나’의 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두둥실 떠오른 한가위 보름달이 감나무 아래의 어린 소년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. 송호의 모습을 한 소년이었다. 나는 지옥의 방에 갇힌 송호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다. 화폭에 새겨진 하이쿠의 오른쪽 아래에 행복을 상징하는 한자인 ‘복(福)’도 수 놓았다. 내 비단 복주머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글자다. 센세이라면 뻔하게 조선의 낡은 풍습이 드러나 보인다면 낙제점을 주었을 테지만,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은 나의 작품에 온갖 칭찬을 쏟아부으며 나를 뿌듯하게 해 주었다.

- ① 지옥 같은 현실에 있는 송호가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.
- ② 조선의 전통적인 상징과 정서를 작품에 담으며,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.
- ③ 나라를 빼앗기기 전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마음 놓고 즐기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.
- ④ 내 작품에 보내는 가족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에 위로받으며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.
- ⑤ 센세이도 내 작품에 실려 있는 하이쿠에 관심을 갖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.

5. ㉠과 ㉡에서 드러나는 엄마의 가치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㉠ “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.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아. 다이가 저지른 죄로 그 가족까지 벌을 받아서는 안 돼.”
 ㉡ “미옥아, 엄마는 지금 가난한 아이들만이 아는 배고픔에 대해 말하는 거란다. 육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굶주림 말이야. 내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따뜻한 우동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야. 밥은커녕 간장을 탄 물 한 그릇조차 간절한 굶주림을 말하는 거야. 내가 내 자식들보다 그 애들을 먼저 생각했다면 서울로 보내는 건 내가 아니라 그 애들이었을 거야.”

- ① 신앙을 바탕으로 자비와 나눔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다.
- ②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의 나머지 가족들까지 고통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.
- ③ 고아들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는다.
- ④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려고 한다.
- ⑤ 아이들에게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하는 절박한 굶주림을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.